



HOUSE OF ART

커다란 창 너머 시시각각 바뀌는 해운대 바닷빛을 매일 마주하는 일상.
예술적 감성이 충만한 라이프스타일을 선사하는 곳. 갤러리 하우스 '애서튼 어퍼하우스 Atherton Upper House' 이야기다.

부산 바다의 파노라마 뷰가 펼쳐지는 곳

부산에서도 입지 좋기로 소문난 달맞이고개, 오륙도와 광안대교, 해운대 백사장이 어우러진 곳. 맑은 날이면 일본 대마도가 보이고 LCT와 센텀시티 마천루의 야경이 멋진 곳, 갤러리와 럭셔리 하우스가 즐비해 '전통 부촌'으로 알려진 이곳에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개념의 레지던스가 들어선다. 세계 최초의 디지털 갤러리 하우스 '애서튼 어퍼하우스'가 그 주인공. '아트ART'를 프로젝트의 핵심에 두고, 일상에서의 힐링Healing을 집의 가치로 담았다. 기존의 고급 빌라와 차별화된 '아트 라이프' 테마 설계가 특징이다. 이번 달맞이 프로젝트를 기획한 골드워터코리아(주) 김형수 대표는 애서튼 어퍼하우스를 '그 위치의 특별함과 코로나 팬데믹'이 가져온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 공간에서 바다 풍경이 수시로 변화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을 때 그 격에 걸맞은 예우를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특히, 팬데믹으로 어려운 시기 '마크 로스코Mark Rothko'를 마주했을 때와 같은 울림과 치유를 표현하고 싶었다고 한다. 단순한 집이 아니라 풍경과 예술을 통해 마음을 정화하고 평온을 찾으며 치유하는 공간을 만들고자 했다는 것이다. 갤러리 하우스를 표방하는 애서튼 어퍼하우스 내외부에는 다채로운 아트 작품이 공간의 일부를 이룬다. 그중 하나가 부산 바다, 해운대 바다의 파노



라마 뷰는 물론 해운대 해수욕장과 마린시티, 센텀시티, 광안대교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입지의 강점을 극대화한 설계가 돋보인다. 모든 유닛은 해운대를 향해 있으며, 넓은 벽면을 가득 채운 통창을 통해 아침 햇살을 받아 뜨는 무지개색 파도의 포말부터 매시간 태양의 변화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부산 바다의 아름다운 빛과 풍광을 감상할 수 있다.





빌라 자체가 하나의 예술 작품

지하 3층~지상 6층, 전용면적 237~273㎡, 11가구 규모를 자랑하는 애서튼 어퍼하우스 비스포크 개념을 도입해 “주거 시설로서뿐 아니라 문화, 건축적으로도 의미가 남달라 예술적 취향을 이해하고 향유하는 이들에게 최적화된 아트 하우스”라는 김형수 대표의 설명처럼 외관 설계부터 내부 디자인까지 단순한 럭셔리 주거 시설을 넘어서는 하나의 거대한 예술 작품을 콘셉트로 지어졌다. 먼저, 달맞이고개를 대표하는 건물이라는 점에 착안해 하부에 열주를 더하는 방식으로 하늘 위에서 빛나는 달 같은 외관을 완성했다. 몽글몽글한 구름을 형상화한 지층부는 편안한 분위기를 자아내는데, 총 11세대가 모두 각기 다른 형태의 평면과 테라스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전체적으로는 가로 프레임이 강조된 통일감 있는 입면을 적용해 안정감과 품위를 이끌었다.

거대한 바위들이 솟아오른 듯한 형태의 기단부는 오랜 역사가 깃든 이 지역에 단단하게 뿌리내린 듯한 모습으로 시선을 끈다. 유닛별로 특화된 공간과 가든도 빼놓을 수 없다. 갤러리에서 작품에 최적화된 조명을 조율하듯, 각 공간에 어울리는 빛을 세심하게 조율해 아늑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벽과 벽, 벽에서 천장, 바닥으로 이어지는 유려한 곡선은 공간의 미감을 극대화한다. 자연광이 가장 아름답게 깃들 수 있는 요소를 고려해 공간의 다채로운 컬러와 질감을 결정한 것도 특징. 마지막으로 각 유닛의 스타일에 가



장 잘 어울리는 아트 작품과 쟈 가든을 배치해 ‘치유’를 선사하는 공간을 완성했다. 11개 세대는 사용자의 취향과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해 모두 각기 다른 구조로 설계했다. 1층은 앞마당을 이용할 수 있는 가든 타입, 2~3층은 복층 구조의 듀플렉스 타입, 4층은 테라스 타입, 5~6층은 옥상을 루프톱 가든으로 활용할 수 있는 펜트하우스 타입이다. 각 세대에는 공통적으로 약 132㎡ 규모의 갤러리 공간이 조성되어 특별함을 더한다. 애서튼 어퍼하우스 홍보관(부산 해운대구 달맞이길 117번가길 74)에서 색다른 라이프스타일의 시작점이 되어줄 남다른 공간들을 미리 살펴볼 수 있다.

EDITOR 김수진 COOPERATION 애서튼 어퍼하우스(3445-0296)

NFT 아트를 품은 갤러리 하우스

창을 통해 보이는 자연 그 자체가 예술인 이곳에서는 진짜 아트 피스도 만날 수 있다. 뉴욕을 중심으로 신세대를 대표하는 미디어 아티스트 크리스타 김 Krista Kim과 협업해 해운대 앞바다를 테마로 하는 그녀의 NFT 작품을 집 안에 배치한 것. 오로지 하나의 공간에 최적화된 아트 피스로, 빌라를 구입하면 그녀의 예술 작품도 함께 사게 되는 셈이다. 크리스타 김은 무한한 색상을 디지털 아트로 구현해내는 ‘테크이즘 Techism’의 창시자. 2021년 세계 최초의 메타버스 하우스인 ‘마스 하우스 Mars House’를 제작했는데, 가상의 공간 화성에 인류가 거주하는 NFT 건축물로 아트 플랫폼 슈퍼레이어에서 50만 달러에 판매되어 뜨겁게 주목받았다. 또한 2022년 2월 한 달 동안 밤 11시 57분에서 12시까지 뉴욕 타임스스퀘어의 모든 전광판에 그녀의 작품을 송출함으로써 팬데믹에 지친 인류를 치유해 화제를 모기도 했다. 크리스타 김은 그동안 벤츠, 루이 비통, 랑방, 람보르기니 등 프리미엄 브랜드와 콜라보레이션을 하면서 상업 제품에 새로운 예술적 가치를

더하는 활동을 해왔다. 애서튼 어퍼하우스는 크리스타 김에게 요청해 11개 세대 각각의 테마와 달맞이고개의 풍광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작품 ‘디지털 쟈 가든 Digital Zen Garden’을 제작했다. 그린을 베이스로 해운대 앞바다와 같이 변화하는 빛을 담은 작품 시리즈는 11개 유닛 각각의 내부와 공용부까지 총 12점이 도입되었다. 특별한 점은 세대 계약자에게 그 세대에 해당하는 작품의 소유권이 담긴 디지털 월릿을 함께 제공하는 것.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아티스트의 원작을 소유하는 것은 물론 시대의 흐름에 따른 경제적 가치 상승까지 기대해볼 수 있어 이색적이다.

세계 최초의 디지털 미디어아트 하우스인 애서튼 어퍼하우스는 2022년 5월 부산 아트페어에서 프랑스의 유명 건축가이자 디자이너인 장 푸르베(1901~1984)의 작품 ‘해체할 수 있는 집 Demountable House’과 병행해 실제 전시하기도 했다. 아트페어에 전시된 실제 집으로서 국내 첫 사례이기도 하지만, 이와 같이 ‘실제 사는 집’을 예술 작품화한 경우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